



문화 예술을 통한 환아와 가족의 마음 치유
사노피, 2016 ‘초록산타 상상학교’ 개최

- 초록산타, 2004년부터 만성·희귀난치성 질환 환아의 자존감 향상 지원
- 초록산타 상상학교, 환아와 더불어 형제, 자매와 부모의 정서 회복 돕는 온 가족 대상 프로그램
- 무용가, 미술가, 스토리텔링 트레이너 등 다양한 문화 예술분야 전문가의 참여로 10주간 체험형 수업 열려

2016년 6월 16일, 서울 -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Sanofi)의 국내 제약사업부문인 주식회사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 이하 “사노피”)와 비영리공익재단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홍명희)는 이달 중순부터 10주간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인 ‘초록산타 상상학교’를 연다고 밝혔다.

‘초록산타 상상학교’는 참여 아동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표현력과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무용,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문화 예술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10주간의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3년에는 환아 대상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으나, 이제는 환아의 형제 자매, 부모, 친구 모두가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왔다.

올해 초록산타 상상학교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대상으로 나뉘어, 각 참여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춘 체험형 교과 과정으로 운영된다. 문화예술콘텐츠개발연구소인 ‘아츠 커뮤니케이션 21’이 이끄는 놀이형 움직임 수업과 (사)한국표현예술문화협회의 주도 아래 진행되는 미술 교실은 참여 아동들이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 신체적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환아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고 소통의 방법을 터득해 나감으로써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댄스 및 스토리텔링 워크숍 등 환아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도 별도로 마련된다. 동일하게 10주간 부모가 겪을 수 있는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가족 구성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열린다. 10주간의 정규 수업 이후, 9월 상반기에는 ‘초록산타 상상 놀이터, 한 여름 밤의 꿈’이라는 테마로 올해 초록산타 상상학교의 성과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노피 커뮤니케이션 및 기업사회책임의 이해경 팀장은 “올해 초록산타 상상학교를 통해 환아와 가족에 포괄적인 정서 케어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도 환자중심주의 가치를 실현하며, 우리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노피와 아름다운가게는 지난 2011년 아름다운가게 초록산타 매장(강남구청역 점)을 설립하고,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를 초록산타 및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재투자함으로써 사회책임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만성·희귀난치성 질환 환아에게 책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초록산타



아름다운 책장'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신뢰 받는 파트너로서 다양한 사회책임 활동 역시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한편 초록산타 상상학교 관련 사항은 공식 페이스북에서 (www.facebook.com/greensanta2004)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초록산타 상상학교>에 대하여

2004년 첫 출범한 '초록산타'는 만성·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정서함양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제약업계 내 대표적인 장수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초록산타 상상학교'는 만성·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표현력 향상, 자존감 형성, 잠재력 실현을 돕고 정서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극, 미술, 글쓰기, 영상, 사진, 무용 등 다양한 장르를 주제에 따라 연결하고, 자신 안에 숨겨진 이야기와 가능성을 탐색하게 돕는다. 이를 통해 질환 때문에 위축된 마음에서 벗어나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자신도 몰랐던 재능과 아름다움, 가능성을 발견하게 도움으로써 환아들의 건강한 자존감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록산타>에 대하여



'초록산타'는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정서함양을 지원한다. 2004년 출범한 '초록산타'는 세계적인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국내 제약사업부문인 주식회사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이하 사노피)가 후원하고 있으며, 국내 제약업계의 대표적인 장수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아름다운가게와 협력하여 '초록산타 상상학교'를 통해 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사노피는 2011년 아름다운가게 강남구청역 매장(일명 초록산타점) 기증 및 정기적인 임직원 자원봉사 및 재활용 물품 기증을 통해 자원의 순환을 통한 환경보호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2013년에는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 환아를 위해 우리시대 명사 100인이 추천한 <초록산타 아름다운 책장 100선>을 선정해 전국의 병원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환자 쉼터에 책장을 기증했으며, 서울시 내 7개 도서관에서 순회 전시를 진행한 바 있다.

사노피(Sanofi)에 대하여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노피(Sanofi) 그룹은 인간 삶의 개선을 위한 치료 솔루션을 연구, 개발 및 제공하는 세계 선두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파리 (EURONEXT: SAN) 및 뉴욕 (NYSE: SNY)에 상장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가 전문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세노비스)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백신(사노피 파스퇴르), 희귀질환치료제(사노피 젠자임), 동물약품(메리알 코리아)을 통해 예방에서 치료까지, 전문의약품에서 건강기능식품까지, 사람에서 동물까지, 환자들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